

사회

# ‘민주화 산증인’ 광주가톨릭센터 이전

### 연말 치평동·쌍촌동 분산... 5·18 기록물 보존 등 아카이브 센터 활용

금남로에서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소리없이 지켜보았던 광주가톨릭센터가 터를 옮긴다.

광주가톨릭센터는 1980년 5월 민주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합성과 절규를 고스란히 간직한 ‘산 증인’.

또 민주열사들을 추모하고 1987년 6월항쟁까지 집회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광주가톨릭센터는 15일 “광주시의 민주인권센터로 조성 방침에 따라 36년간 금남로 시대를 마감하고 연말까지 센터와 산하기관의 이전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올 연말까지 서구 쌍촌동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치평동 건물 등으로 분산

이전된다.

이 건물은 건립 당시 유일하게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고, 지진에도 안전하다는 선박제조형 특수공법으로 지어졌다. 1층은 관리실과 사무실, 2층엔 서점, 4~5층까지는 광주평화방송, 광주인권평화재단 등 천주교 기관단체가 사용하고 있다.

5·18 광주민중항쟁 사적 4호이자 ‘민주화의 등불’인 가톨릭센터가 건립된 것은 지난 1976년. 1986년 천주교 광주대교구청으로 사용되면서 이곳은 격동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 자리할 수밖에 없었다.

5·18 당시에는 계엄군에 쫓긴 시민들의 피난처로 됐고 억울한 농민과

합없는 노동자들의 사랑방 역할까지 했다. 80년 당시 최초의 학생 연좌시위, 대규모 차탈 시위가 센터 앞에서 이뤄졌고 그 탓에 건물 곳곳엔 계엄군의 총탄 흔적 등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건립 때부터 센터가 대교구청으로 사용된 만큼 이 건물과 동고동락을 함께한 이는 1974년부터 교구장 직을 수행했던 윤공회(88) 대주교였다. 윤 대주교는 5·18 당시 동구 학운동에 있던 숙소를 뒤로 하고 집무실인 센터 6층에서 신부들과 함께 계엄군의 만행을 지켜봤다. 그는 금남로 일대의 참혹한 장면을 목격한 뒤 신부들과 함께 계엄군의 봉쇄선을 넘어

1980년 5월20일 김수환 추기경을 만나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등 ‘광주 구원’에 나서기도 했다.

센터가 이전한 뒤 이 건물은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5·18 기록물이 비치되는 5·18 아카이브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5·18아카이브센터=전 5·18 당시 뿐만 아니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5·18 관련 모든 기록물을 수집, 보존하는 일종의 전시관이다. 센터는 5·18 기록물 외에도 민주·인권·평화 관련 기록물을 종합하는 역할도 한다.



고인의 넋 기리며... 5·18 민중항쟁 32주년을 앞두고 15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소속 회원들이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꽃을 새로 바꾸고 묘비를 닦아주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18일 5·18묘지 시내버스 298회 증회

광주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32주년인 18일 오전 5시40분부터 밤 10시15분까지 국립 5·18 민주묘지 구간을 경유하는 2개 노선 시내버스를 298회 증회 운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 5·18 묘지를 평소 28~31분 간격으로 68회 운행 중인 시내버스 518번 노선은 이날

20~23분 간격으로 88회 증회 운영하고, 북구 장동동이 종점인 중앙 06번 노선은 이날 국립 5·18 묘지까지 연장해 9~11분 간격으로 210회 증차 운행된다.

또한, 기념식 행사 당일에는 5·18 민주유공자(동반 가족 1인 포함) 및 유족회원에 대해 시내버스 무임승차가 가능하다.

한편, 17일부터 19일까지 5·18 전야제와 기념식 등 각종 기념행사가 집중되는 광주 동구 금남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도 낮 12시부터 자정까지 교통이 전면 통제돼 이 구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20개 노선이 광주전변 또는 전남여교 방향으로 우회 운행된다.

또한, 20일과 26일, 27일에도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금남공원~아시아문화전당 구간에 대한 교통이 전면 통제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인권평화재단 9만달러 해외 민주·인권운동에 지원

광주인권평화재단(이사장 김희중 대주교)이 올해 9만 달러(한화 약 1억원)를 해외 민주·인권·평화운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단은 올해 스페인 리우카 전후 북구지역인 마나라 전쟁 미망인 자립 및 고아 교육 지원, 실종자 트라우마 치료 및 법률상담 프로그램, 태국 치앙마이외의 소수민족 여성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버마이주 난민 어린이들의 영양 및 위생설비 지원 등에 일정금액을 후원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학생이 인조잔디보다 못해?

### 교감이 “잔디 훼손” 부상학생 구급차 막아 빈축

광주지역 한 고교 교감이 “인조잔디와 트랙이 훼손된다”며 체육대회에서 부상당한 학생을 치료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차를 운동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15일 광주 서구 A고교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께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과 교사들간 축구경기 도중 골키퍼로 참가한 3학년 B군이 교사 사와 충돌해 왼쪽 무릎뼈가 골절됐다. 그러나 학교 측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차가 B군이 쓰러져 있는 운동장에서 진입하려 하자 C교감은 마이크를 통해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이 상할 수 있다”며 다친 학생을 들것으로 구급차까지 옮기라고 교사에

게 지시했다. 결국 부상당한 학생은 들것에 실려 트랙 밖 50여m 가량 떨어진 곳에 주차돼 있던 구급차로 옮겨졌다.

교감의 발언을 들은 학생들은 “학생보다 잔디가 더 중요하냐”며 운동장에서 교감의 사과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등 반발했다. 교감은 곧바로 “상황판단을 잘못된 것 같다.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부상당한 학생의 부모를 만나 사죄했다.

C교감은 “당시 부상당한 학생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대처가 미흡했던 것 같다”며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등 수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총무원장 관련 등 또 폭로할 것 많다”

### 성호스님 검찰 출석

조계종 스님들의 도박 동영상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한 성호스님이 15일 검찰에 출석했다.

성호스님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을 만나 “추가로 폭로할 내용이 많다”며 추가폭로 내용에 총무원장 자승스님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의혹을 뒷받침할 동영상과 사진자료를 갖고 있는지는 질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 총무원장 스님이 뒤라고 답변하는지 직접 보고나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협뉴스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계획된 폭로는 의혹에 대해서는 “망해버린 조계종, 국민과 종교를 속이는 종단 집행부에 엄중하게 금감청취를 내려 조계종을 다시 구하기 위한 진리의 칼이라고 본다. 핵심은 동영상 아니고 행위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에서 반드시 사필귀정 하리라 믿고 왔다. 대통령 측근도 구속하는 검찰이 반드시 이런 국가적 범죄행위를 엄단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성호스님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스님 8명이 장성군 모 관광호텔에서 술과 담배를 하며 관동 수어원 의 도박판을 벌였다는 고발장을 냈다.

## 니원침 (8567) 김종두



## 뇌물 공무원 무죄 항소

광주지검이 15일 최근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영광군 상하수도 사업소 공무원에 대한 무죄를 선고(본보 5월 14일자 6면)한 광주지법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영광군 가정급수공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김모(39)씨가 500만원 이하의 소액 공사와 관련 모든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돈을 받기 전에는 업체 관계자를 잘 몰랐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햇살론 이용 대출 사기 15명 검거

허위서류로 금융권으로부터 전세 및 창업대출자금을 받은 뒤 거액의 수수료를 뜯어낸 불법 대부 중개업자 및 고금리 불법대부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허위로 서류를 작성, 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이나 창업대출자금을 받게 해 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불법 대부 중개업자 최모(43)씨에 대해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모집책 이모(47)씨와 박모(57)씨, 대출을 희망하며 속칭 ‘바지’ 역할을 한 정모

(33)씨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3월까지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겐 명의만 빌려주는 속칭 ‘바지’ 대출자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계약을 위조, 서민 전세자금대출 4건에 8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또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작성해 ‘햇살론’ 창업자금대출 1억 2000만원을 받게 하는 등 모두 6건에 2억5000만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1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만취 승객 놓고 간 휴대전화 슬쩍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이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택시사가 경찰서행.

○15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택시운전사 이모(51)씨는 지난 4월 11일 새벽 4시에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객 김모(여·39)씨를 내려준 뒤, 김씨가 놓고 내린 6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 결과 이씨는 주운 김씨의 휴대전화를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대리점을 방문해 유심카드를 변경했다가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바람에 들통.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경찰청지정 운전면허 시험장

“공원같이 아늑한 학원전경”

www.yjcdrive.co.kr

# 운전면허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광주 최대의 규모    깨끗한 환경    친절한 강사진

학원에서 교육한 차량으로 주5회 장내·도로 자체시험 실시

- 새벽반, 야간반, 주말반 운영
- 2012년 7월 부터 수강료에 부가세 과세예정
- 교재무료 배부
- 11월부터 도로주행 시험강화로 수강료인상 예정
- 셔틀버스 운행

트레일러

대형

1,2종 보통

2종 소형 (오토바이)

## |주|영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

위치: 신가동 사거리 분향교회 옆, 중앙아동병원 앞 ☎062-951-5100